

소재 경쟁력 높은 삼성SDI, 유럽 상용차 시장 '정조준'

'2022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 참여
국내 배터리 기업 중 유일하게 참가
상용차 모델별 차별화된 성능 제공

삼성SDI가 소재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며 유럽 상용차 시장을 노리고 있다. '2022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IAA Transportation Hannover 2022)'에서 배터리 혁신 기술 선보이며 올해는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참가한 기업이 됐다.

삼성SDI는 삼성SDI만의 상용차에 특화된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들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IAA에서 선보였다. IAA 2022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독일 하노버 메세(Hannover Exhibition Grounds)에서 열렸다. 삼성SDI는 이 자리에서 상용차 고객사를 위한 비공개 부스를 마련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및 제품을 전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SDI '2022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 전시관 전경

/삼성전자

독일 IAA는 뮌헨(홀수 해)과 하노버(짝수 해)에서 각각 승용차, 상용차 전시회로 번갈아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SDI는 '새로운 전기차 시대를 견인한다(Heading Towards a New Horizon)'라는 주제로 배터리 소재 기술력, 품질관리, 대량생산 역량 등 핵심역량을 강조했다. 또한 상용차 고객

들에게 삼성SDI만의 기술력으로 상용차에 특화된 기술과 제품들을 소개했다.

삼성SDI는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와 독자적인 특허를 가진 (Silicone Carbon Nanocomposite) 소재 기술 등을 통해 고에너지밀도와 급속충전, 장수명 성능을 향상시킨

P6(각형 6세대 배터리)를 소개했다. NCA는 NCM보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난도 높은 소재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삼성SDI는 '코발트 프리(Co-Free)'와 전고체 전지를 포함한 각형, 원형 배터리 로드맵을 선보여 고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삼성SDI 측은 "삼성SDI만의 상용차에 특화된 스케일러블(scalable) 모듈/팩 혁신기술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배터리의 에너지, 충전시간, 수명 등을 상용차 모델별로 최적화해 차별화된 성능을 제공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배터리 업체들에 있어 상용차 분야는 성장성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다. 적재용량에 따라 전기 상용차(600~1000kWh)에는 승용차(75~80kWh)에 비해 8~13배 많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된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츠앤마켓츠는 글로벌 전기 상용차 시장은 2022년 35만

3000대에서 2030년 314만대로 연평균 31.4%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시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삼성SDI는 양극재 기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니켈 함량을 극대화한 배터리 시리즈를 준비중이다. 현재 삼성SDI의 제5 배터리에는 니켈 함량이 88% 이상인 NCA 양극이 사용되고 있으며 발전한 제6 배터리는 니켈 함량을 90% 이상까지 극대화할 예정이다.

손미카엘 삼성SDI 중대형전지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부사장)은 "삼성SDI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상용차에서도 특화된 삼성SDI만의 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더 새로워진 전기차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삼성SDI의 기술경쟁력 및 품질, 나아가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KT, '양자센싱' 산업현장서 국내 첫 실증

보령 LNG터미널 4분기 현장 실사
미세한 빛 측정에 광범위하게 활용

SK텔레콤이 양자암호통신과 양자센싱이라는 두 날개를 단다. SKT는 양자 특성에 기반한 양자센싱을 산업 현장에 첫 실증에 나서 양자산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SKT는 보령 LNG터미널에 올 4분기 현장 실사를 실시해 내년 양자가스 센싱 설치 및 적용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스 안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각종 환경가스 누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SKT는 대형 가스 시설물의 가스 유출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양자(퀀텀)'기반의 가스센싱 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보령 LNG 터미널에서 현장 실증한다.



SK텔레콤과 LNG 터미널 및 퀀텀센싱사는 충청남도 보령에 위치한 LNG 저장탱크에 양자가스 센싱 시스템을 설치·적용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퀀텀센싱 김동만 대표이사, SK텔레콤 하민용 최고사업개발책임자(CDO), 보령 LNG터미널 김봉진 대표이사. /SKT

SKT와 보령 LNG 터미널 및 퀀텀센싱 3사는 충청남도 보령에 위치한 LNG 저장탱크에 양자가스센싱 시스템을 설치·적용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자센싱'은 미세한 크기의 양자를 검출해 이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기술로, 가스센싱·자율주행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미세한 빛을 측정하는 기술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양자가스센싱 시스템 국내 첫 실증사업은 지금까지 양자의 특성을 통신 보안에 활용했던 QKD(양자키분배기)와 QRNG(양자난수생성기)에 이어, 양자센싱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양자산업이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다. /채윤정 기자

SK C&C, AI로 도시가스 배관 안전 관리

드론 기반 AI 굴삭기 감지 서비스

SK C&C '드론 기반 인공지능 굴삭기 감지 서비스'가 전국 도시가스 배관 안전 관리에 나선다. SK C&C는 20일 SK E&S와 함께 개발한 '드론 기반 인공지능 굴삭기 감지 서비스'를 전남도 시가스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남도시가스를 끝으로 SK E&S(8개)까지 전체에 '드론 기반 인공지능 굴삭기 감지 서비스' 도입이 완료됐다.

SK E&S는 2019년 충청에너지지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지역을 담당하는 코원에너지서비스, 강원도시가스, 전북에너지서비스, 영남에너지서비스, 부산도시가스 등에 '드론 기반 인공지능 굴삭기 감지 서비스'를 도입해왔다.

'드론 기반 인공지능 굴삭기 감지 서비스'는 인간의 시각적 인식 능력을 재현한 인공지능 '비전 AI 솔루션'을 연계한 드론을 띄워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미신고 무단 굴착 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굴착에 의한 가스관 파손 사전 예방은 물론, 넓은 지역에 걸친 의무 순회 점검과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 순회 점검이 용이해졌다.

가스 배관 주변에 접근하는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굴삭기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과 연계해 지하에 매설돼 있는 가스 배관 위치를 증강현실(AR)로 매칭시켜 보여줌으로써 미신고 굴착기 공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컴투스

'콘텐츠 투자펀드' 참여

컴투스는 계열사인 벤처캐피털 크릿벤처스가 결성한 콘텐츠 투자 펀드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총 1015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펀드는 크릿벤처스가 운용을, 국내 대표 벤처캐피털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공동운용을 담당한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자금사업인 한국모태펀드를 비롯해 컴투스와 계열사 위지웍스튜디오, 컴투스의 파트너사인 알비더블유 등이 LP(Limited Partner: 펀드출자자)로 참여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겨냥한 투자 협력체를 조성한다.

펀드 결성을 주도한 크릿벤처스는 산업 육성은 물론 그룹 내에서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LG U+·AWS·삼성전자 클라우드 기반 코어망 구축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망 운용

LG유플러스가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망 운용이 가능한 백업망 구축에 성공했다.

LG유플러스는 아마존웹서비스(AWS), 삼성전자와 함께 트래픽 제어에 사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를 AWS 클라우드에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네트워크에 적용하면 다양한 서비스별 요구사항에 따라 인프라스트럭처 자원을 자유롭게 변경·배치할 수 있다. 특히 재난상황이나 트래픽 증가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망을 운용해 고객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번 실증작업에 사용된 삼성전자의 5G 코어 장비인 UPF(User Plane Function)는 컨테이너 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장비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장비를 활용하면 트래픽 증가 시 처리 성능과 용량을 확장해 최적의 품



LG유플러스 직원들이 5G UPF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질을 유지할 수 있고, AWS 클라우드 내 네트워크 장비 구성에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할당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운영 중 장애 복구 조치, 애플리케이션 배포 등의 운영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번 협업은 AWS와 LG유플러스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AWS와 미래 클라우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네트워크 클라우드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AWS 클라우드를 활용한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한국타이어 세계 최초 전기차 풀라인업 구축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 국내 출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전용 풀라인업을 구축하며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 전용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을 20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유럽 시장에 먼저 선보이며 전기차 타이어 시장의 돌풍으로 떠오른 아이온은 국내 전기차 소비자들의 다채로운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온은 한국타이어만의 전기차 특

화 기술로 완성된 프리미엄 브랜드다.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기차 모델에 장착되며 사계절용, 겨울용, 여름용 등 6개 상품으로 구성돼 세계 최초 전기차 전용 풀라인업을 갖췄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고성능 전기차에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시장에는 이달부터 사계절용 아이온 에보 AS, 아이온 에보 AS SUV와 겨울용 아이온 윈터, 아이온 윈터 SUV 등 4개 상품 총 20개 규격을 출시한다. 내년에는 여름용 아이온 에보, 아이온 에보 SUV까지 점차적으로 상품과 규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